

번호: OP-H-003					
제 목	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빈도조사 자료를 이용한 청소년 식생활 유형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의 관련성 Dietary Patterns associated with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adolescents aged 13-18 years old in the 2001 Korean National Health and Examination Survey				
저 자 및 소 속	김미경, 박주완, 최보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Mi Kyung Kim, Joo Wan Park, Bo Youl Choi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Hanyang University, College of Medicine				
분 야	역 학 [뇌심혈관계]	발 표 자	김미경 일반회원	발 표 형 식	구 연
<p><b>배경 및 목적:</b> 열량, 지방 등 식사의 특정 요인과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으나 식생활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식생활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생활 유형 (dietary pattern) 분석이 제시되어 왔다. 본 연구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13-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 식생활이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관련된 식생활로 유형화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.</p> <p><b>방법:</b> 식생활 유형은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13-18세 청소년 837명(남자 n=421, 여자 n=416)을 대상으로 식품빈도조사(FFQ)의 62개 항목을 37개 식품/식품군으로 재 분류하여 인자 분석(Factor Analysis, Principal Axis)으로 확인하였다.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은 GL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</p> <p><b>결과:</b> 대상자의 몇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15.2세 (SD, ±1.7)였으며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평균 12.3년이었다. 고혈압, 당뇨, 심장질환의 가족력은 각각 13.3%, 10.3%, 2.3%였다. 건강관련 행위 중 흡연의 경우 남학생이 6%, 여학생이 1%가 흡연자였으며 '현재 술을 마신다'고 응답한 사람이 남학생, 여학생이 각각 8.3%, 5.3%였다. 하루 평균 걷는 시간은 남학생이 63분, 여학생이 58분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BMI도 21.4, 21.3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이들의 식생활은 6가지 유형을 보여주었는데 1) 한국인 전통식 I군은 채소, 버섯, 미역/김, 콩, 육류, 생선, 감자 등 한국인의 일상 부식 재료의 높은 빈도를 보였고, 2) 간편식 유형은 빵, 라면, 과자, 탄산음료, 햄소시지, 떡 등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. 3) 음주와 음료 유형은 맥주, 소주, 커피, 차에서 4) 전통식 II는 밥, 배추, 무에서 5) 과일 유형은 모든 과일에서, 6) 피자/햄버거 유형은 피자과 햄버거에서 높은 섭취 빈도를 보였다. 각각의 유형을 인자점수에 따라 5개군으로 분류하고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여 건강관련 행태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전통식 I 유형 점수가 높아질수록 흡연율과 음주율이 낮아진데 반하여 음주 및 음료군에서는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흡연, 음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성별, 연령, 흡연, 음주(음주와 음료 유형에서는 음주는 제외), 1일 걷는 시간, 체질량지수 (체질량지수가 결과변수인 경우는 제외), 부모의 교육수준을 보정한 후 유형 점수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은 간편식 유형 점수가 높아질수록 허리둘레가 커졌으며 (Q1 vs. Q5 = 72.4 vs. 73.5 cm, p for trend =0.0045), 음주 및 음료 유형 점수가 높아질수록 확장기혈압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(Q1 vs Q5 = 66 vs 70 mmHg, p for trend 0.0031). 과일유형에서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총콜레스테롤 (156 vs 147 mg/dl, p for trend =0.0271)과 LDL 콜레스테롤 수준 (91 vs 82 mg/dl, p for trend =0.0074)이 낮아졌다. 이 연구 결과는 이미 청소년기에 식생활이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상관성을 보이며 유형화할 가능성을 보이는 결과이다.</p>					